

바이오벤처 멘토링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수년간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바이오헬스케어 벤처들은 돈도, 인력도,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원천기술은 있는데 창업이 두려운 연구자도 있고 힘겹게 창업해 잘 운영해왔지만 미래 성장 전략이 절실한 벤처도 있다. 멘토의 조언 한마디, 추가 투자, 글로벌 네트워킹은 바이오 벤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다리다. 지난달 9일 매일경제는 바이오 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 관련 협회, 병원, 제약사, 벤처캐피털, 애널리스트 등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MK바이오골드클럽' 멘토단을 발족시켜 포럼을 두 차례 개최했다. MK바이오골드클럽은 앞으로도 벤처와 멘토단의 만남은 물론 멘토 간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모든 플레이어가 소통하는 창구로 키워갈 예정이다. 멘토링을 원하는 바이오벤처와 예비창업자들의 신청도 연중 계속 받는다. 이메일(okchan@mk.co.kr)로 문의하면 신청 양식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리더스클럽) 이정선 대표 기업소개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5회 바이오리더스클럽 조찬에서 기업발표를 하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대표는 올해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한다고 15일 밝혔다. 바이오솔루션은 두번의 상장 실패 경험이 있지만 올해는 그간의 연구성과와 사업성을 토대로 상장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대표는 뉴스1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바이오 리더스 클럽' 조찬에서 "코스닥 상장의 전단계인 기술성 평가를 최근 통과했다"며 "올 상반기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솔루션은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이다. 주로 화상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06년 품목허가를 받은 '케라힐'은 환자의 정상피부로부터 분리한 피부각질세포를 증식배양한 세포치료제다. 2도 화상이나 3도 화상 치료에 주로 쓰인다.

2015년 품목허가를 받은 '케라힐-알로'는 2016년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다국적제약사 한국먼

디파마가 위탁판매하고 있다. '케라힐-알로'는 유아 피부각질세포를 분리 및 증식한 제품으로,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에 작용기전이다. 연간 연구비가 매출보다 높다보니 아직은 적자지만 '케라힐-알로'를 통해 올해 흑자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솔루션은 올해 새로운 세포치료제 허가에도 도전한다. 이정선 대표는 "자가 연골세포치료제인 카티라이프에 대해 임상을 마친 상태"라며 "올해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티라이프'는 환자 관절의 초자연골조직으로부터 분리한 연골세포를 증식·배양해 만든 연골조직으로, 무릎 관절연골 결손 치료제다. 지난해 의약품 분야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생리활성 상처치료제 '스템모빌-겔'에 대한 비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동물실험 대체에 기여할 만한 독성 검증 인체조직모델도 연구 중이다.

그밖에 바이오솔루션은 주름개선 및 미백, 피부탄력 회복 기능을 가진 화장품 원료 '스템수'를 기능성 화장품 원료물질로 공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